전남도-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집단민원 대응 '전담팀 가동'

나주서 태스크포스(TF) 구성 · 운영 첫 회의

사진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에 건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혁신도시 SRF(Solid Refuse Fuel · 비성형 고형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 '전경. 이 발전소는 공식 준공을 앞두고 시험 가동 중인 가운데 대기환경 오염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혁신도시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응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운영회의를 6일 오후 나주시에서 개최 한다.

TF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대기환경 오염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 중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운영된다.

주민 집단민원 대상인 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난방용 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공식 준공을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발전소 가동 연료인 SRF가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것으로 알려지자 대기환경 오염물질 유출을 우려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료를 청정에너지원인 'LNG(천연가스) 100%'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 집단 반발에 부딪힌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준공 예정일인 지난 4일 '환경영향평가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준공 승인을 잠정 보류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늘 오후부터 처음으로 가동되는 TF에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경제과학국장,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혁신도시지원단장 등이 참여한다. 나주시에서는 부시장, 혁신도시에너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등이 함께 한다.

두 기관은 전남도에서 4명, 나주시에서 1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TF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적정관리, 고형연료 품질 검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발전시설 허가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지도·단속하게 된다.

TF 운영을 총괄하게 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국가산단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의 환경수요에 대비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소 대기배출시설 지도 단속에 집중 한다.

경제과학국은 사용연료, 전기생산 등 발전시설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 단속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발전소 인근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매일 대기오염도와 악취를 조사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발전시설 인허가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이행여부, 악취 관련 행정처분 업무 등을 전담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와 합동 TF 구성·운영을 통해 발전소 시험 가동 이후 매일 제기되고 있는 환경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정대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호남차별 상징' 경전선 80년 전철화 꿈 이루나

영·호남 물류-교류-경제 활성화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인식돼온 광주 송정~부산 삼랑진 간 경전선(慶全線)이 81년 만에 전철화의 꿈을 이룰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여건이 무르익어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전선 전체 구간 중 마지막 퍼즐 격인 광주~순천 간 전철화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늦어도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조304억원(국비)에 이른다.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머리글자를 딴 철도로, 총 300.6㎞에 이르며, 이 중 광주~순천 구간(116.5㎞)만 유일한 단선이고, 전국적으로도 구간길이 200㎞ 이상 4대 간선철도 중에서도 나홀로 단선·비전철 구간이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12월 개통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량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

삼랑진~마산(40.6㎞)은 1905년, 순천~진주(80.5㎞)는 1968년에 각각 개통됐다.

선로도 낡고 불량해 화물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호남 물적, 인적 교류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1차 전철화, 2차 복선화를 추진키로 하고 행정력을 올 인했고, 그 결과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예타가 진행중이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제적 논리보다 지역낙후도와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기본계획수립비 48억원이 내년 국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타를 통과할 경우 본예산도 지원한다는 부대조건도 달렸다.

여건도 긍정적이다. 새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호남홀대론' 불식에 힘을 쏟고 있는 데다 기획재정부가 예타 도입 후 18년 만에 SOC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고, 계층화분석(AHP)도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가 30%에서 35%로, 정책성은 35%에서 40%로 각각 상향돼 낙후된 광주·전남으로선 긍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에 호남권 솔로몬파크 건립

법 관련 체험 교육시설
민주인권기념파크 연계
설계용역비 7억원 확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법 관련 교육·체험 시설인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에 솔로몬로파크 설계용역비 7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법 교육시설로 모의법정과 모의국회, 과학수사, 주부 로스쿨 등 다양한 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대전솔로몬로파크와 2016년 부산솔로몬로파크에 이어 세 번째다.

총사업비 193억원에 부지 2만3358㎡, 건축면적 7492㎡ 규모로 법 체험관과 법 연수관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옛 광주교도소의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 강영숙 법무담당관은 "호남권 청소년과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안고 있는 옛 광주교도소의 상징적인 공간에 머물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파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SNS서포터즈 WITH동구 2기 출범

광주 동구가 6일 동구 SNS서포터즈 'WITH 동구' 2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구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구정소식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자 지난 1월 SNS서포터즈 'WITH 동구'를 운영해왔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WITH 동구' 2기는 52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문화, 복지 등 9개 분야로 구성돼 보다 특화된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날 발대식은 김성환 동구청장과 서포터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동구 SNS 및 서포터즈 활동내용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서구, 버스승강장 태양광LED로 환하게 밝혀

광주 서구가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태양광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유개승강장 현장조사 통해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앞, 농촌마을, 아파트주변을 중심으로 총7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이번 달까지 '태양광 LED 조명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태양광 조명시설은 태양광 집열판과 충전기를 통해 낮 시간 동안 태양광을 축적한 뒤 일몰 후 불을 밝히는 녹색에너지 사업이다.

남구청 청렴도 수직상승…광주 5개 구 중 최고

광주 남구 공직사회의 청렴도 지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남구는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3등급(8.09점)으로 평가됐다.

남구가 획득한 종합 청렴도 8.09점은 비교 대상인 전국의 모든 자치구의 평균 점수인 8.05점보다 높은 수치이며,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이다.

남구는 이번 평가를 통해 외부 청렴도 분야에서 8.43점을 기록해 전년 대비 0.6점이 상승해 2등급을 기록했으며, 전국 자치구의 외부 청렴도 평균 점수인 8.22점 보다 높았다.

북구, 제2회 북구8경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

광주 북구가 '제2회 북구 8경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선보인다.

북구는 지난 30일 열린 '제2회 북구 8경 전국관광사진공모전' 심사에서 수상작 총 34점을 선정하고, 오는 29일 오후 6시 북구청 갤러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카메라 부문 금상에는 김승재씨의 '충장사 풍경'이, 은상에는 백소연씨의 '장날', 유득현씨의 '열정의 응원'이 선정됐으며, 동상은 손찬국씨의 '기쁨 연못', 장성숙씨의 '토끼등 가는 길', 조한술씨의 '취가정 전경'이 각각 차지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문 금상에는 소지원씨의 '충민사 관광'이, 은상에는 소세훈씨의 '무진고성 나들이'가 선정됐으며, 동상은 김소영씨의 '광주호에서', 김운경씨의 '취가정의 늦가을', 백숙현씨의 '호수생태원'이 각각 차지했다.

광산구, 영유아 수면 코칭사업 협약식 개최

광산구가 '영유아수면코치' 양성에 착수했다.

영유아수면코치는 방문 또는 전화로 수면장애 등 육아 전반을 조언한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고충을 해결하면서,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직업군이다. 이 사업은 광산구와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의 하나다.

광산구는 내년 3월 공개모집으로 자원자를 선발해 30여 명을 우선 영유아수면코치로 교육할 계획이다. 병원, 협동조합, 대학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들이 협업해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 188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구 성 계(310724-1550418)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금봉로63번길 8-1, 207호(소촌동)

위 망 구성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7년 12월 7일

공 고 인 : 구양금, 구현실, 구용필, 구전경.
주 소 : 광주북구 하서로2411번길 16, 101동 1306호(양산동, 금광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1월 29일
공고기간 : 2017. 12. 7~ 2018. 2. 8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법인설립
■ 기 업 진 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 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